
Primary Stent를 시행한 환자에 대한 고찰 : 장골정맥 압박으로 인한 혈관폐색환자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진단방사선과

김중학, 김종덕, 김경복, 선종백, 최남길

목 적 : 장골정맥의 압박은 심부정맥 혈전증, 서혜부 암이나 골반강내의 종괴, 임신으로 자궁이 압박하는 경우 등으로 하지의 심부정맥혈이 복강내 대정맥으로 유입 못하게 된다. 이런 장골정맥 압박으로 인한 만성 정맥 혈관의 폐색 치료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2001년 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장골정맥에 Primary Stent을 실시한 환자 중 장골정맥 압박인 11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령의 분포는 40~71세(평균 55세)였다. 이중 남자가 5명, 여자가 6명이었으며 모두 만성 폐쇄정맥이었고, 심부정맥 혈전증은 없었다. 이들은 모두 왼쪽 하지에 질환이 있었으며 고통을 가지고 있던 기간은 20~168개월(평균 56개월)이었다. 시술의 성공률은 technical success와 clinical success로 분석하였다.

결 과 : 11명의 환자 중 9명의 환자에게 Primary Stent Implant을 시행하여 Technical success 비율은 82%였으며, clinical success의 비율은 78%였는데, 9명의 환자 중에 7명에서만 나타났다. 추적 검사 기간은 3~12개월(평균 6개월)이었으며, 시술 후 11개월이 지난 한명의 환자에서만 재발을 보여 다시 혈관 성형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결 론 : 만성적인 정맥혈관 압박 증후군에 있어 Primary Stent 시술은 매우 알맞고 안전한 치료였음을 알 수 있었다.